

나인우 “롤모델은 나 자신... 계속 성장하고 싶어요”

‘징크스의 연인’으로 첫 주연... ‘클리닝업’도 활약 데뷔 9년차... 군입대 앞두고 있지만 조바심 없어

탤런트 나인우(28·나종찬)는 대타에서 주연으로 거듭났다. 지난해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2021)에 중간 투입됐다. 당시 탤런트 지수(29)가 학교폭력 논란으로 하차해 구원 투수로 나섰다. 그해 KBS 연기대상 신인상과 베스트커플상까지 받았다. 전날 막을 내린 KBS 2TV ‘징크스의 연인’ 주연까지 꿰차며 승승장구했다.

이 드라마는 무녀 ‘이슬비’(서현)와 생선장수 ‘공수광’(나인우)의 로맨스를 그렸다. 동명 웹툰이 원작이다. 마지막 16회에서 슬비와 수광은 역경을 딛고 결혼, 훗날 아들을 낳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1회 3.9%(닐슨코리아 전국기준)로 시작, 16회 3.0%로 시청률은 높지 않았지만 마니아층을 형성했다.

“징크스의 연인은 첫 경험이었다. 1~16회까지 주인공으로 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 수광이 거의 모든 장소에 나왔는데, 다양성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다. 후회없이 촬영했고 최선을 다했다. 윤성호 PD님이 워낙 편하게 해주셔서 현장 분위기가 좋았고 즐겁게 촬영했다. 진주 촬영이 많아 숙박하면서 찍었는데, 그러다보니 좀 더 돈독한 케미가 나왔다. 전작(달이 뜨는 강)에서 함께 한 스태프들이 80% 정도여서 편했고 동고동락하면서 찍었다.”

공교롭게도 JTBC 드라마 ‘클리닝업’과 방송 시기가 겹쳤다. 징크스의 연인은 지난해 6월개봉부터 12월 말까지 촬영했지만, 방송이 늦어졌다. 클리닝업은 올해 1월부터 촬영에

들어갔다. “촬영 시기는 달랐지만 방송이 겹쳤다”며 “전혀 다른 캐릭터라서 부담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솔직히 시청률도 신경 쓰지 않는다”며 “때가 맞아야 하지 않느냐. 작품이 어느 시기에 좋게 자리를 잡기도 하지만, 나중에 또 다시 뜰 수도 있기 때문”이다.

주연을 맡았다고 달린 건 없다. 징크스의 연인이 첫 주연작인 만큼 좀 더 애착이 갈 법도 한데, “많이 나오는 것과 적게 나오는 것의 차이일 뿐 똑같이 연구해 연기한다”는 자세다. “평소 압박감과 부담감을 많이 느낀다”면서도 “오히려 연기할 때는 그런 생각이 안 든다. 역할이 크든 작든 상관없다. 내가 열심히 하면 되니까. 클리닝업에선 아무래도 주연이 아니니 캐릭터 서사가 조금 부족했다. 하지만 타당성을 부여하면서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나인우는 두 작품에서 상반된 매력을 뽐냈다. 클리닝업에선 ‘어유미’(영정아) 옛 친구의 사촌동생 ‘이두영’을 연기했다. 박사과정 밟고있고, 용미 집에 세 들어 사는 하숙생이다. ‘베스티드 투자증권’ 용역 미화원 ‘안인경’(전소민)과 러브라인을 형성했다. 징크스의 연인과 캐릭터가 전혀 달랐지만 괴리감은 없었다며 “진짜 다르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시청자들이 나인우가 이런 캐릭터도 할 수 있네”라고 느끼게끔 보여주고 싶었다. 두영은 말할 때 자신감이 없지만, 호흡이 세지 않고 약간 먹는다. 실제로 내가 말을 잘 못해서 그런 부분은 끌어서 쓰고 톤을 약간 올렸다”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기 그룹 ‘소녀시대’ 서현(31), 텔런트 전소민(36)과 각각 로맨스 연기를 했다. 두 사람 모두 선배인 만큼, 호흡하며 배우는 점도 많았다. “서현 누나는 나랑 성격이 되게 다르다”면서 “누나는 뭔가 하는 걸 좋아하는데, 난 약간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다. 서로 알아가면서 적당함의 에너지가 생긴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반면 “소민 누나는 굉장히 털털하다. 낮을 가린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먼저 말도 많이 걸어주고, 캐릭터 캐리 줘도 빨리 몰입할 수 있었다”고 했다.

“서현 누나는 초반에 약간 코믹 케미를 살리려고 했다. 중후반에 슬비와 수광이 조금 더 절절하고, 성장해 어른이 돼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두영과 인경은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비슷한 점이 많다. 둘 다 자신을 질척하고, 스스로 엄격하다. 둘의 관계가 아슬아슬해서 외줄 타는 느낌이었다. 진짜 깊게 들어가면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해 아슬아슬했다. 나중에 마음을 확고하고 확 가꿔줬다.”

나인우는 ‘KBS 아들’로 불리고 있다. KBS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물까지 위기가 생겼을 때 투입, 맹활약했다. 올해 초 KBS 2TV 예능물 ‘1박2일’ 시즌4에 합류했다. 사생활 논란으로 하차한 탤런트 김선호(36) 빈자리를 채웠다. 기존 멤버인 그룹 ‘코요태’ 김종민(43)을 비롯해 개그맨 문세윤(40), 탤런트 연정훈(44), 래퍼 딘딘(31) 등은 드라마 모니터링을 해주며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행들이 드라마 나오기 전부터 ‘언제 방송 하나’ 잘 됐으면 좋겠다’고 응원해줬다. 방송 시작한 뒤에도 계속 관심 가져주고, ‘저기 가면 멀쩡한데 여기서 왜 그러냐고’ 장난치



곤 했다. 1박2일에 합류한 지 6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편하지는 않다. 형들과 많이 친해졌지만, 카메라가 많다 보니 무섭다. 드라마 촬영할 때는 카메라가 많아 3~4개인데, 예능은 10개가 넘는다. 1박2일 속 모습이 실제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다. 내 안에는 다양한 모습이 있다.”

나인우는 어느덧 데뷔한 지 9년 차다. 2013년 뮤지컬 ‘총각네 아저씨’로 연기를 시작했다. 드라마 ‘빛나거나 미치거나’(2015) ‘엄마’(2015~2016) ‘황금주머니’(2016~2017)

‘연남동 패밀리’(2019) ‘쌍갑포차’(2020) ‘철인왕후’(2020~2021) 등에서도 활약했다.

내년 군입대를 앞두고 있지만 “조급함은 없다”며 “이왕 늦었으니 할 수 있는 한 작품을 더 하고 싶다”고 밝혔다. “데뷔했을 때랑 지금이랑 똑같다. 하나씩 배우면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영화 ‘해바라기’에서 김래원 선배가 연기한 캐릭터를 해보고 싶다. 롤모델은 항상 나다. 어쨌든 계속 성장해야 하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언젠가 나도 누군가의 롤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하정우·황정민 드라마 ‘수리남’ 내달 공개

‘범죄와의 전쟁’ 윤종빈 감독과 배우 하정우가 다시 한 번 합작한 드라마 ‘수리남’이 다음 달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넷플릭스는 8일 “수리남”이 9월9일 시청자를 만난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남미의 수리남이라는 나라를 장악한 마약상과 얽힌 남자가 국경원의 비밀 임무를 수락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하정우가 목숨을 걸고 국경원의 작전에 참여하는 남자 ‘강인규’를, 수리남을 장악한 마약상 ‘전요한’을 황정민이 연기했다. 또 전요한을 잡기 위해 작전에 돌입한 국경원 요원 ‘최창호’는 박해수가, 전요한의 오른팔인 행동대장 ‘변기태’는 조우진이 맡았다. 전요한의 변호사 ‘데이비드 박’은 유연석이, 그리고 수리남에서 악명 높은 중국 조직 수장 ‘첸진’은 대만 배우 장첸이 연기했다.

연출은 ‘공작’(2018) ‘군도: 민란의 시대’(2014)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를 만든 윤종빈 감독이 맡았다. 윤 감독과 하정우는 다섯 번째 작품을 함께하게 됐다. 두 사람은 ‘군도: 범죄와의 전쟁’을 비롯해 ‘베스티 보



이즈(2008) ‘용서받지 못한 자’(2005)를 같이 했다.

‘한산:용의 출현’ 450만명 ↑...2주 연속 주말 1위

누적 관객수 459만명... ‘비상선언’ 제압

영화 ‘한산:용의 출현’이 2주 연속 주말 박스오피스 정상에 오르며 450만 관객을 고지를 밟았다. ‘비상선언’은 개봉 첫 주말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한산:용의 출현’은 5~7일 전국 1638개관에서 1만9928회 상영돼 115만6887명을 끌어모으며 주말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수는 459만8522명이다. 올해 국내 개봉 영화 중 400만명 이상 본 작품은 ‘한산:용의 출현’ 포함 ‘범죄도시 2’(1269만명) ‘탐간:매버릭’(744만명) ‘닥터 스트레인지’ ‘대훈돈의 멀티버스’(588만명) 등 4편이다.

‘한산:용의 출현’은 이번 주말 ‘비상선언’(1718개관 2만762회 상영)보다 상영관수와 상영횟수가 모두 적었는데도 1위 자리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이같은 추세라면 손익분기점

인 600만 관객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영화 제작비는 약 300억원이다.

이 영화는 2014년 1761만 관객이 봐 역대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있는 ‘명량’의 후속작이다. 전작에 이어 김한민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이순신 장군과 조선 수군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왜 수군을 격퇴한 한산도 해전을 그린다. 이순신 역은 배우 박해일이, 왜군 장수 와키자카는 변요한이 연기했다. 이밖에 김성규·안성기·손현주·김성균·김항기·옥택연 등이 출연했다.

‘비상선언’은 같은 기간 81만7098명이 봐 주말 박스오피스 2위에 올랐다. 누적 관객수는 139만8285명이다.

‘비상선언’은 ‘관상’(2013)의 한재림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는 점, 국내 최초 항공재난영화라는 점, 배우 송강호·이병헌·전도연·임시완·



김남길 등 스타 배우들이 출연한다는 점 등으로 큰 관심을 받았으나 개봉 첫 주말 ‘한산:용의 출현’ 벽을 넘지 못했다

이 추세라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500만 관객을 넘어서는 게 쉽지 않아 보인다. 이 영화 제작비는 약 250억원으로 알려졌다. 이주에는 여름 성수기 대작 한국영화 마지막 타자인 ‘헌트’가 개봉한다. 이 작품엔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출연했다.

정일우, 재벌 2세 탐정은 어떻게... ‘굿잡’



배우 정일우가 재벌 2세로 분한다. ENA ‘굿잡’(극본 김정애·권희정 연출 강민구·김성진)은 클래스가 다른 재력을 갖춘 초재벌 탐정 은선우(정일우 분)와 해상

도가 다른 시력을 가진 초시력자 최준생 돈세라(권유리 분)가 함께 펼치는 히어로로맨틱(Hero+Romantic) 수사극이다.

정일우는 외모, 재력, 두뇌, 싸움 실력 등 모든 것을 갖춘 은선우로 분할 예정이다. 그동안 ‘아가씨를 부탁해’(2009), ‘꽃미남 라면가게’(2011), ‘신데렐라와 네 명의 기사’(2016) 등 출연하는 로맨틱 코미디 장르마다 호평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굿잡’ 측이 재벌 회장 은선우로 변신한 정일우의 첫 스틸을 8일 공개했다. 세 시한 슈트핏에 여유로운 표정까지 갖췄다. 은선우는 낮에는 재벌 회장으로 살지만, 밤에는 탐정으로 변하는 인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정일우는 문자 그대로 완벽한 남자 은선우와 100%의 싱크로율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정일우의 새로운 인생 캐릭터가 탄생할 것 같으니 시청자 여러분도 기대해 달라”고 청했다.

‘굿잡’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후속으로 오는 24일 오후 9시 첫 방송된다.

거꾸로 입어도 이효리, 가수 행보 계속...이번엔 포크



1세대 걸그룹 출신 톱스타인 이효리가 다양한 음원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가수로서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이름을 거꾸로 해도 이효리인 그녀는 거꾸

오는 11일 발매, 남편 이상순 ‘기타 연주’

로 봐도 가수로서 매력을 놓치지 않고 있다.

8일 ‘투트랙 프로젝트’에 따르면, 이효리가 가장 참여한 ‘투트랙 프로젝트’ vol.3 ‘오늘부터 행복한 나’가 오는 11일 오후 6시 발매된다.

‘투트랙 프로젝트’는 싱어송라이터이자 작사가 조동희·작곡가 조동희의 남매가 공동 프로듀싱을 맡은 기획이다. 하나의 노래를 두 명의 남녀 뮤지션이 각각의 버전으로 선보이는 음악 프로젝트다.

‘오늘부터 행복한 나’는 잠시 모던걸 벗어나 마음 속의 자신을 만나고, 작은 꽃에서 우주를 발견하자는 다짐을 노래했다. 포크 장르 계열의 곡일 것으로 보인다. 이효리의 따뜻한 음색이 기대된다. 이효리의 남편인 기타리스트 이상순이 기타를 연주했다.

조동희는 기타리스트 이병우와 함께 한 전설의 포크 듀오 ‘어떤날’로 유명한 뮤지션이다. 올해 상반기에 그가 당대 아이돌 출신인 이효리와 작업한다는 소식이 먼저 알려졌을 때, 음악 팬들 사이에 관심이 컸다.

이효리는 2013년 제주로 터전을 옮긴 뒤 정착 초기부터 조동희 그리고 그의 음악적 동반자인 장필순과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왔다. 가끔 술도 한 잔하며 음악과 인생 이야기를 나눠왔다.

제주로 터전을 옮기기 직전에 발매한 정규 5집 ‘모노코롬’의 선공개곡 ‘미스코리아’는 어쿠스틱한 분위기의 노래로, 기존과 달라진 음악 세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 음반에 실렸던 ‘누군가’는 조동희가 작사한 곡이었다.

이효리는 2017년 정규 6집 ‘블랙’ 이후 자신의 이름을 전면에 내건 솔로 음반은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2020년 MBC TV 예능물 ‘놀면 뭐하니?’ 프로젝트로 유재석·비(정지훈)와 결성했던 혼성 그룹 ‘씩씩리’로 음악 활동을 했다.

최근에 자신이 주인공으로 나선 티빙 오리지널 예능 ‘서울체크인’ OST로 ‘악뮤’ 찬혁이 작업한 ‘프리 스마일(FREE SMILE)’을 불렀다.